

주름살 제거는 표정까지 없앤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학이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른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늘날 인간에게 각종 편리함을 제공하였듯이 의학의 발전은 인간을 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인간의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물론 암이라든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증후군과 같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각종 전염성 질환의 퇴치, 그리고 요즈음 보편화된 장기 이식 등 현대의학의 발전은 눈부시다.

의학발전으로 삶의 질 향상

최근에 의학자들의 관심은 단지 고전적 의미의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생명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저 체념하고 살았던 영역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개발이 그 대표적인 예로써, 이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의학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미용수술기법이 날로 새



曹 珧 鉉
(서울대 의대 피부과학교실 교수)

로워지고 있고 우울한 기분을 없애주는 약물이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새로 개발된 대머리 치료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에서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분야가 인간의 노화에 관한 것이다. 생명체가 늙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며 노화현상을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옛날부터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은 인간의 꿈이었으며 인간의 질병 퇴치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과학자들은 이제 노화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노화하면서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각종 퇴행성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노화라고 하면 얼굴 피부의 주름살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사람에 따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주름살은 인간이 늙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들더라도 주름이 없고 탄력성이 유지된 피부를 갖기를 소망하는 것 같다.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얼굴 피부의 주름살을 없애는 방법으로 개발된 것도 여러 가지이다. 외과적 수술방법도 있고,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를 주사하는 방법도 있으며, 함몰된 피부에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다. 주름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 회사마다 경쟁적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개발된 방법들은 과거의 방법보다 효과가 우수하며 안전성도 높은 편이다.

또 홍보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름살을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감성적인 영역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치료전

치료후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주름살의 치료

없애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얼굴의 주름살을 없애고 젊어 보이겠다는 욕구를 타타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얼굴의 인상도 경쟁력이 된 요즘 세상에서 젊고 활기찬 인상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얼굴에 인생의 체취 나타나야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늙는 것에 대한 상정처럼 되어 있는 얼굴 피부의 주름살을 없애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사람은 나이 사십

하는 것이 얼굴의 주름살이다. 그런 까닭인지 주름살이 많은 노인의 얼굴은 인물사진을 찍는 작가들의 좋은 대상의 하나가 된다. 우리는 얼굴의 주름살이 많은 노인의 파안대소하는 모습에서 천진한 어린이의 웃음 못지않은 감동을 받으며, 깊게 파인 얼굴의 주름을 가진 평범한 노인의 표정에서 그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과도하게 얼굴의 주름살을 없애려고 노력한 탓에 인형 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면, 주름살을 펴기 위

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 얼굴의 표정이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역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인상이 바뀌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 신경을 마비시킨 결과 화가 나도 얼굴이 찡그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가 살아온 인생의 진솔한 체취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요즈음은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너무나 빨라져서, 신문을 비롯한 언론 매체에서도 새로운 것을 소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그러나 몇년 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것에 밀려서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가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곤 했다.

플라스틱 제품에 밀려난 전통적인 바가지라든가,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없어지게 된 협궤 철도를 운행하는 기차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감성적인 영역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의학이 더욱 발전되어,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누구나 주름살이 거의 없이 젊고 활력이 있는 얼굴 피부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얼굴의 주름살에 대해 이와 유사하게 없어진 옛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㉞